

‘江’에는 현재만 있을 뿐, 미래의 그림자는 없다

불교로 읽는 古典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



유한근
문학평론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

독일의 시인, 소설가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 1877~1962)가 자신의 명성을 우리에게 각인 시킨 작품은 <데미안>(1919)이다. 그리고 그의 문학을 세계 문학의 반열에 올린 소설은 1946년 노벨문학상 수상작 <유리알 유희>(1943)다.

“인간의 길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말한 헤세는 신낭만주의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차 대전의 체험이 계기가 되어 그의 문학은 내면으로 향하여 심화되어 갔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세계 평화라는 문학 사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고통과 자유와 방랑을 사랑하는 소박한 낭만으로 넘치고 있으며, 주옥 같은 문장으로 아름답게 평가 받고 있던 헤세는 <싯다르타>(1922)를 쓰게 된다.

<싯다르타>는 <데미안>(1919), <내면에 이르는 길>(1931)과 같은 맥락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작품이다. <데미안>에서는 주지적인 구도자의 모습을 나타내며, 그가 구하는 것은 외적 현실이 아니라, 제2의 현실이 내면에 이르는 길임을 <싯다르타>에 보여주고, <내면에 이르는 길>에서 유럽 문화의 몰락 의식과 동양인 신비의 동경이 정점에 이르게 된다. <싯다르타>는 실존 인물인 ‘싯다르타’의 깨달음 과정을 역동적으로 재구성한 소설이다. 때문에 이 소설에 대한 담론 중 하나는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쓴 전기이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으나, <싯다르타>는 픽션이기 때문에 허구로서 한 인간의 깨달음, 그 여정에서의 디테일한 심리묘사나 정신적 고뇌, 그리고 불교적 인식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서구의 초기불교 이해 산물

<싯다르타>는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브라만의 아들’ ‘사문들 곁에서’ ‘고타마’ ‘각성’ 등 4장으로 되어 있고, 2부는 ‘카말라’ ‘소인들 곁에서’ ‘윤회’ ‘강가에서’와 ‘벳사공’ ‘아들’ ‘옴’ ‘고빈다’ 등 전4장, 후4장 등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을 혹자는 4성제 8정도를 연상케 하는 구성법이라 말하고 있다.

<싯다르타>에 대한 많은 연구자들이 이 작품의 사상적 종교적 경향에 대해서 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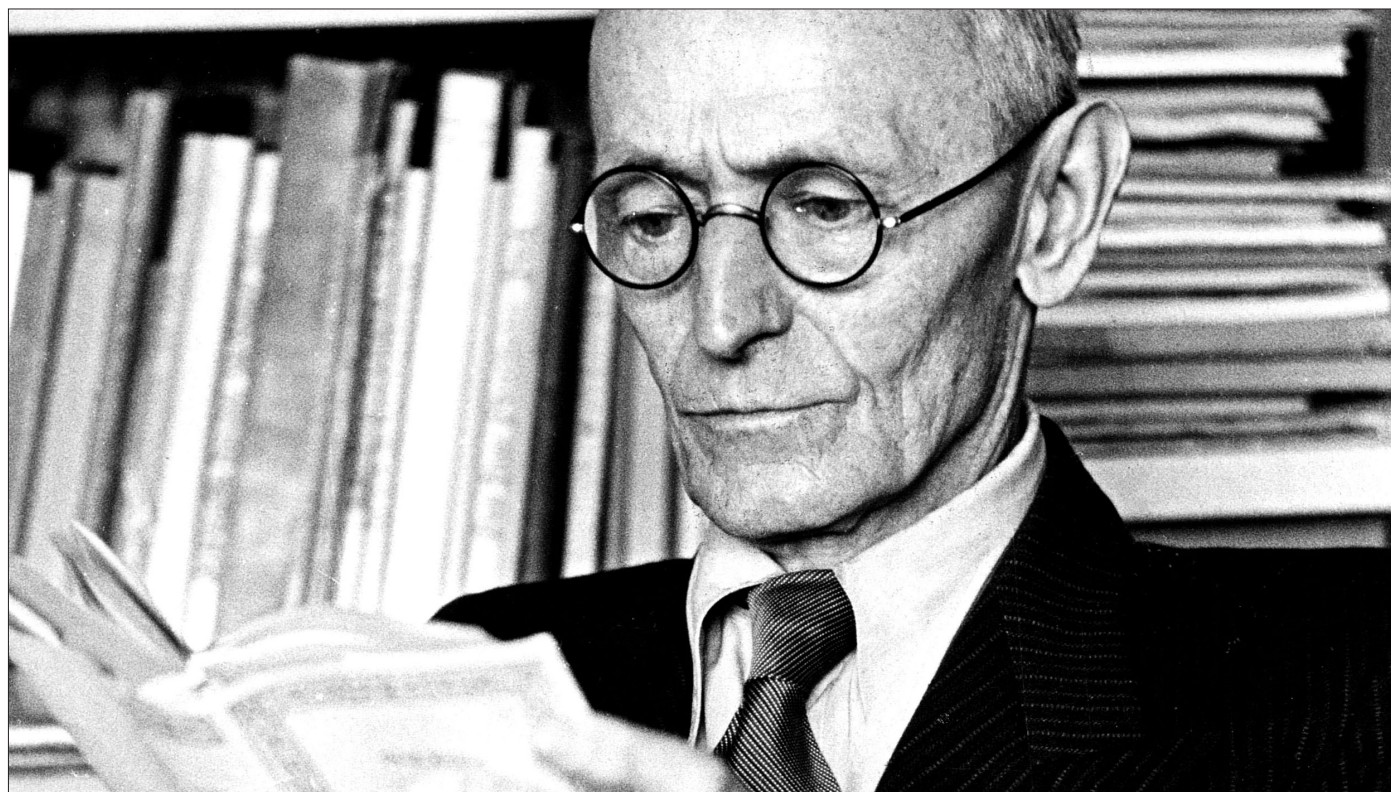
과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 소설은 ‘싯다르타’의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정신적 여정, 그리고 헤세가 섭렵한 사상들, 기독교 신비주의와 동양의 힌두교, 도교, 불교 등의 사상이 소설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되지만, 우리는 헤세가 어떻게 싯다르타를 이해하고 있고 불교의 큰 물줄기를 어떻게 잡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보아도 좋을 것이다.

제1부 ‘바라문의 아들’에서 제일 먼저 주목되는 부분은 ‘싯다르타’가 베다성전에서 ‘옴’을 인식한다는 부분이다. ‘옴’은 완성을 뜻하는 말로 기도와 주문에서 처음과 끝에 사용하는 말이다. 이를 통해 싯다르타는 자신의 본성 속에 아트만 혹은 우주의 유일한 존재임을 깨닫고, ‘고빈다’를 도반으로 삼는다. 이 부분에서 특히 관심 가는 부분은 싯다르타가 비단나무 밑에 앉아 “옴은 활, 영혼의 화살(箭)은 화살이 과녁(靶)으로 되어, 그 과녁을”이라는 시를 읊거리며 읊는 장면이다. 이 부분은 초기 불교 탄트라파의 사라하(라함)를 연상하게 된다. ‘사라’는 ‘활’이라는 뜻이고, ‘하’는 적중한다는 뜻으로 “화살을 과녁에 적중하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라는 과녁에 적중시키려는 열망이 활로 표상된 노래로 보인다.

제1부 마지막 장 ‘각성’에서는 “인연을 아는 것은 사유요, 그를 통해서만, 감각은 인식이 되어 소멸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되어, 그 속에 있는 것이 빛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자아를 각성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노랑 빛과 푸른 빛 산과 강이 오감을 통해 들어와 신비로운 그 중심에 자신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제2부의 첫 장은 ‘카말라’이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믿고 길을 떠나기로 다시 결심한 싯다르타는 벳사공 ‘바스테바’와 만나게 된다. 바스테바는 싯다르타에게 벳사도 받지 않고 “강물 소리를 들으며 강 눈동자를 들여다 보시오. 그럴 때마다 그곳에서 배워지는 것이 있소”라고 말하면서 회담을 던진다. (그는 후에 싯다르타에서 큰 깨달음을 얻는데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싯다르타는 강 건너 빨래하는 여자로부터 처음으로 성적 유희를 받는다. 그녀는 ‘나무 오르기’라는 일종의 성행위의 교대로 그를 유희한다. 그러나 그는 그 치명적 유희를 물리치고 참대밭을 지나 시내로 들어온다. 그곳에서 그는 카말라를 통해 카마스와미를 만나게 된다.

이 두 사람의 이름에서 공통분모인 카마(Kama)이다. 이는 고대 인도의 성애에 관한 경전인 카마수트라를 의미하며, 사랑이 여신인 카마를 암시한다. 이들은 이름이 암시하는 대로 싯다르타에게 세속적 사랑과 욕망을 경험하게 한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설가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 1877~1962). 서양 기독교 신비주의부터 동양의 불교, 힌두교, 도교 등 다양한 사상과 철학을 섭렵한 그는 <싯다르타>를 비롯해 <데미안>, <내면에 이르는 길> 등의 구도적 소설을 창작했다.

단순한 ‘부처님 일대기’ 아닌

내면적 깨달음 이르는 길 그려내

헤세가 가진 ‘사상의 여적’ 주목

강의 흐름으로 내면 의식 심화 표현

싯다르타 여정서 깨달음의 본령 찾아

보여주고 있는 장이 ‘소인들 곁에서’이다. 카말라는 싯다르타에서 사랑의 유희를 알게 해주고 후에는 아들을 낳아 준다. 그리고 그에게 세속의 갈등을 통해 인간적인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여인이 된다.

제2부 세 번째 장인 ‘윤회’이다. 이 장에서 싯다르타는 카말라와의 육체적 사랑이 끝없는 윤회임을 알게 되고, 육욕의 세계, 그 끝이 죽음임을 카말라의 얼굴에서 인식하게 된다. 세속적 삶이 권태롭고 카말라와의 이별을 생각할 때, 그는 꿈을 꾸게 된다. 카말라의 새장 안에서의 죽은 새 꿈이 그것이다. 그는 망고나무와 정원과 이별하고 길을 떠난다. 그리고 숲속을 한참을 방황하다가 강 쪽으로 간다.

모든 것은 강처럼 무상하라

‘강가에서’ 싯다르타는 강물을 바라보고, 죽음을 생각한다. 그는 “부패되어 더러운 몸, 쇠약하고 타락한 영혼”을 강물에 던져버리려고 한다. 그 때, 한 마디의 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신성한 말, 완전한 것 혹은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옴”이라는 소리다.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리

석였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야자수 밑에서 피로에 못 이기고 쓰러져 깊은 잠에 든다. 잠에서 깬 그는 도반인 고빈다를 만나게 되고, 고빈다를 통해 싯다르타는 ‘옴’으로 마음이 충만한 자가 만물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

그 다음의 장은 ‘벳사공’이다. 싯다르타는 “조용하게 흘러가는 물 속을, 투명한 물 속을, 신비스러운 모양의 수정과 같은 물결”을 들여다 본다. 거기에는 그가 강의 비밀을 알게 된다. 이 물은 흐르고 흘러 영원히 흐르고 있으나, 언제나 그곳에 있다는 것을, 항상 그곳에 있어 어느 때나 같은 물이나 순간마다 새로운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모든 것들이 강물처럼 ‘무상(無常)’함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는 벳사공 바스테바를 찾아간다. 그의 집에 초대되어 그로부터 노 젓기와 배 수선하는 법, 바구니 엮는 법, 밭 일 등도 배운다. 그러나 그는 강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어느 날, 싯다르타는 바스테바에게 당시는 강에서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밀을 배운 것이 있는가를 묻는다. 이에 바스테바는 이렇게 대답한다. “강은 항상 동시에 있다. 근원에서나, 강어귀에서나, 폭포에서나, 나루에서나, 여울에서나, 바다에서나, 산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동시에 있다. 강에는 현재가 있을 뿐이고, 과거의 그림자도, 미래의 그림자도 없다”고. 이에 싯다르타는 모든 것은 그 본질과 현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변화는 시간에 근원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의 말에 동조한다. 싯다르타는 바스테바와 같이 머물며 벳사공이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불타의 제자들도 나루터에서 만나게 된다. 그리고 급기야는 카말라와 자신의 아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카말라는 독사에 물려 싯다르타의 품에서 죽게 된다.

‘아들’ 장에서 싯다르타는 자신의 아들이 척박한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반항하고 끝내는 가출하는 아픔을 겪게 된다. 그로인해 자신의 부모님 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족이라는 인연에 묶여 사는 세속인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옴’ 장에서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 강의 소리에서 ‘생명의 소리’를 듣고, 강에서 아버지, 자신, 아들 3대의 모습을 보고 인연과 윤회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또한 인간은 각 개인의 번뇌 속에서 혹은 그들의 각각의 행위 속에서 생명을, 생명 있는 물건을, 불멸하는 것을, 범(梵)을 보게 됨을 알게 되고 그바스테바를 통해서 강의 소리, 물의 소리를 그 본질의 소리를 듣게 된다. 그 소리는 동경의 소리이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과 슬픔의 소리, 선악의 소리, 웃으며 탄식하는 소리 등 수천의 소리”이다.

그는 다만 듣기만 한다. 듣는 것에 도취되어 속을 텅 비게 하고 무엇을 모두 삼켜려는 듯이 듣고 있다. 듣는 것을 끝까지 배웠다는 느낌을 가지게도 된다. 그리고 끝내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된다. 분별심을 놓아 버린 것이다. 소리의 경계를 무너뜨려버린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의 종합이었으며 그래서 “생성의 강이요, 생의 음악”이라는 깨달음을 갖게 된다.

또한 그것은 수 천가지의 노래, 음악이었

다. 그리고 유일한 말 ‘옴’의 완성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자 싯다르타의 얼굴에는 미소가 밝게 빛났고 상처에는 꽃이 피고, 그의 오뇌에서는 빛이 비치고, 그의 자아는 단일로 흘러 들었다. 이 때에 비로소 싯다르타는 운명과 싸우기를 그치고, 고뇌하기를 그치게 된다. 그러자 벳사공 바스테바는 자신의 일이 끝났음을 말하고 떠난다. 그의 모습은 후광으로 빛난다.

헤세와 ‘나루배와 행인’

마지막 장은 ‘고빈다’이다. 싯다르타는 나루터에서 고빈다를 만난다. 물이 지나온 일을 회상한다. 싯다르타는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스승이었음을 말한다. 특히 벳사공 바스테바에게서 많은 지혜를 배웠으면 토로한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나 어찌든지 한번은 범(梵)이 될 것이고 극락세계에 들어갈 것이고, 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 오늘에 이미 미래의 부처는 있는 것이요, 미래는 이미 모두 그 곳에 있는 것이요(…)가 능한, 숨은 부처를 존경하여야 할 것이요 친구, 고빈다”. 이 두 노인들은 서로 존경을 표시하며 삶의 미량과 지혜를 나눈다.

고빈다가 싯다르타의 말대로 몸을 굽혀 싯다르타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싯다르타의 얼굴은 사라지고 그 대신 다른 얼굴이 있었다. 많은 얼굴의 긴 행렬, 강물같이 흐르는 얼굴의 강, 수 백 수천의 얼굴이 보였다. 그 얼굴은 있는가 하며 없어지고, 또한 그 곳에 함께 있는 것도 같았다. 싯다르타는 조용히 웃는다. “자비스럽게, 조롱에 가득 찬 얼굴로, 마치 지존자가 웃는 것과 같이 웃는다. 고빈다는 허리를 푹 숙여 절하였다. 알 수 없는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그의 늙은 얼굴에는 매우 깊은 사랑스런 감각, 그리고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겸허한 존경의 빛이 불과 같이 빛났다.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싯다르타의 앞에 고빈다는 땅에 닿도록 허리를 굽혀 절하였다.”로 헤세의 소설 <싯다르타>는 끝나게 된다.

조리한 줄거리를 통해서 본 <싯다르타>에서 헤세는 동양의 신비를, 불교의 사상을 ‘공간’ 인식을 통해 찾는다. 그 공간 의식은 강에 대한 깨달음이다. 결국 헤세는 이 소설에서 주인공의 내면 의식의 깊어짐을 ‘진전’과 ‘강’을 통해 그려나간다. ‘물’ 혹은 ‘강’이 상상력을 촉발시키며, 그것이 곧 우주적 직관력이 되는 동양인의 의식을 갈파(喝破)하며 불교의 본체가 무엇인가를 찾아나간다. 그 과정을 픽션화한 것이다. 헤세가 그리는 낙원은 언제나 자연의 낙원이며 차안(此岸)의, 이상의 낙원이다. 싯다르타는 사고나 언어를 믿지 않는다. 그가 믿는 것은 강이다. 만해 한운군이 믿었던 ‘나루배와 행인’처럼.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교사, 대구동화사, 부산법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공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공법」을 세상에 널리 펼칠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공법

특
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구단구공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전교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공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강 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공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공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대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공공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공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과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